



# 건강 되찾은 초미숙아, '성균이' 2003-05-30



<8뉴스>

<앵커>

임신 6개월만에 몸무게가 630g,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났던 초미숙아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. 생명의 신비를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.

유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<기자>

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안고 행복해 하는 두 부부. 지난 1월에 태어난 성균이의 엄마, 아빠입니다.

지금은 몸무게 3.4kg의 건강한 성균이지만 태어날 당시만해도 몸무게가 630g밖에 되지 않았고, 크기도 어른 손바닥만한 초미숙아였습니다. 함께 자라던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숨지면서 임신 6개월만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.

{김영월/성균이 어머니 : 낳아도 둘 다 가망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일단은 울고 불고 그랬는데... 그러다가 아기 낳았을때 살아있냐고, 제일 먼저 물어봤거든요.}

천신만고 끝에 세상에 나온 것도 잠시 이번에는 괴사성 장염으로 장에 난 구멍이 성균이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.

수술 전 성균이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. 횡경막 아래 검은 부분이 장에 난 구멍에서 나온 공기입니다. 정상아의 1/5에 불과한 몸무게 때문에 수술을 해도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.

{한석주 교수/영동세브란스 소아외과 :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미숙한 기능들의 발란스마저 깨질 우려가 있고 그 상태로 회복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.}

힘겨운 수술로 구멍을 메꾼 이후 빠르게 회복된 성균이는 다음주면 퇴원을 합니다. 건강해진 성균이를 품에 안은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.

{이만큼 커 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...}

유성재 기자 [venia@sbs.co.kr](mailto:venia@sbs.co.kr)